

# 순천대 컴퓨터교육과,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

### 전남도교육청 지원받아 고교생 대상 'AI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 운영 올해는 딥러닝 인공지능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 수행 실시



국립 순천대 컴퓨터교육과는 9월 첫째 주부터 주말을 활용하여 전남 동부권 일관고 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올해로 4년째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다가올 인공지능 사회를 선도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순천대 컴퓨터교육과가 수행 중인 장기 프로젝트이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선발한 전남 동부지역 고등학생들은 학기당 20시간씩 총 40시간의 코딩 교육과 프로젝트 실습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배운다.

학생들은 파이썬(python) 언어를 이용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하는 데이터과학의 기초와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를 배운다. 또한, 인공지능의 원리와 개념을 익히고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머신러닝까지 실습한다.

올해 프로젝트 주제는 전 세계적 관심사인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자율주행은 사물인터넷 센싱,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결합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총아로,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교육 마지막 단계에서 컴퓨터교육과 교수와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사물인터넷 기기와 카메라 모듈로 구성된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를 스스로 조립한다.

조립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카드만 한 크기의 컴퓨터인 '라즈베리 파이'가 장착되어 있다. 학생들은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 안에서 그동안 배운 파이썬 언어와 'OpenCV' 패

키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로를 따라가면서(라인 트레이싱) 자율주행 자동차를 학습시킬 차선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래밍을 한다. 수집된 차선 데이터는 구글 드라이브로 옮겨지고, 구글 코랩(Colab)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인공지능이 학습된다.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컴퓨터교육과 교수 3명과 대학생 멘토 5명이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직접 지도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순천대 컴퓨터교육과 강인성 교수는 "학내에 구축된 최신 애플 맥 컴퓨터 실습실에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와 센서들이 갖춰져 수준 높은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라며, "지역 고교생들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진로 탐색과 프로젝트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 곡성 석곡중, 자연의 선물인 농생명산업 진로체험 실시



곡성석곡중학교는 지난 18일 관내 고달면에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농생명산업 진로체험을

### 농생명산업의 실제적인 진로 연계 교육에 힘써

실시했다.

이번 농생명산업 진로체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기반인 농생명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태도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 연계 체험 학습을 실시하게 되었다.

석곡중학교는 지역의 주요 산업 기반이 농업이고 곡성이라는 지역 자체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농생명산업의 중요성이 다른 학교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날 친환경농산물인 배 수확과 인절미 만들기를 통해 농생명산업이 단순한 농작물의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가공, 유통, 판매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체험했다.

곡성=양혜영기자



## 완도금일고,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 실시

완도금일고등학교가 지난 14일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를 실시하며 각종 놀이와 캠페인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해와 자녀 교육 인식 변화의 기회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는 완도교육지원청의 특색 사업으로 계절마다 생업 종사에 바쁜 지역 특성상 교육 활동에 많이 소외되었던 아버지들을 초대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통해 소통과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서로의 끼를 확인하는 각종 놀이 ▲운동장 캠프파이어를 통한 속마음 털어놓기로 진행되었다. 아쉽게도 우천으로 인해 캠프파이어 대신 ▲실내 풋볼 행사가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능숙한 사회자와 외부 조명, 음향 업체 등으로 양질의 놀이 시간이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풋볼 릴레이를 시작으로 '속마음 전하기' 등 감

동의 시간이 진행되었다.

2학년 학생 조OO은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시고, 저녁 일찍 주무셔야 하는 일의 특성상 아버지와 소통할 기회가 점점 줄었는데 무대에서 춤을 추시고, 노래도 한 소절 부르시니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풋볼 행사 중 평상시 무뎠던 팔과 다리 저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동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참석한 학부모 천OO은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 참석한 학교 교육프로그램이 처음이다. 우리 아이와 선생님들이 휴여나 부담을 느낄까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실제로 참가해보니 아이와도 한층 가까워지고 평소 교육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좋은 교육을 제공해준 학교에 대해 고맙고, 다음에도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신안 비금초, '어울림 행복 주간' 운영

### 친구 사랑 프로젝트·올바른 언어 사용 교육이라는 두 주제로 진행

신안비금초등학교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교생이 '어울림 행복 주간'에 참여했다.

어울림 행복 주간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다양한 소통과 공감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행사는 친구 사랑 프로젝트와 올바른 언

어 사용 교육이라는 두 주제로 진행되었다.

친구 사랑 프로젝트는 저학년은 친구의 특징을 살려 얼굴 그리기, 친구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등의 활동, 고학년은 친구에게 편지 쓰기, 친구를 위한 긍정말 쓰고 긍정말 사워하기 등의 활동을 했다.

올바른 언어 사용 교육으로는 학급별로 언어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배우고, 올바른 언어



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다.

또한 언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